

삿포로 오템 페스트 - 개최 콘셉트

홋카이도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맛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 대부분은 가을이 되면 삿포로 오도리 공원에 출현합니다. 삿포로 오템 페스트는 결실의 가을을 기념해, 미각을 즐기는 먹거리 이벤트입니다. 9 월 중순부터 3 주간에 걸쳐 도내 각지의 레스토랑과 생산자가 수확한 식재료를 공원으로 가지고 가 미식의 제전을 개최합니다. 사슴고기 등의 야생동물, 소고기나 유제품, 어패류, 과일과 야채, 맥주, 와인, 일본주 등, 지역 특산품이 가득. 이 대부분은 유기재배로 생산되고 있으며, 높은 품질은 홋카이도의 맑은 물과 깨끗한 토양 덕분입니다.

2008 년에 시작한 이 페스티벌은 홋카이도의 주요 계절 이벤트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현재 매년 20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도리 공원에서 개최된 ‘오도리 축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홋카이도 삿포로의 먹거리’를 메인 테마로 도내 각지의 제철 식재료와 현지 먹거리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방문자가 홋카이도의 산물을 마음껏 맛보고 홋카이도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맥주의 제전 ‘옥토버 페스트’의 홋카이도 버전도 있습니다. 이것은 1972 년에 시작된 삿포로와 뮌헨의 자매도시 결연을 반영한 것입니다.